

우리 나라 철학사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의 역사적변천(2)

로 학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수많은 론의되여왔으나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하고있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6권 139페이지)

사람에 대한 견해는 중세에 이어 조선근대철학에서 애국문화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애국문화계몽사상의 초기대표자의 한사람인 리기(호는 해학, 1848-1909)는 사람을 초목금수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존재로 보면서 그것을 감정, 의식을 가진것과 결부시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사람을 《천지의 정수》, 《초목금수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난것은 4단 7정이나 인심, 도심 같은 《의》(주관적판단능력)를 가지고 모든것을 자체로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하는데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사람만이 4단 7정, 인심, 도심을 가진것은 사람이 만물보다 우수한 기로 이루어진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해학유서》 권6 기학존재론서)

그는 사람의 성이 서로 각이하며 선천적으로 주어지고 고정불변하다고 하는 견해를 반대하고 사람의 성은 성인, 군자, 선비, 평민할것없이 본래 다같이 선하며 변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물의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모든 그릇에 담아있는 물의 본질이 다 같은것과 같다고 하였다.(《해학유서》 권3 양기)

사람에 대한 리기의 견해는 사람의 본성을 4단 7정이나 인심, 도심, 성심과 같은 봉건유교도덕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론의하는 중세기적인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으나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의식과 결부시켜보게 하며 사람은 본질상 평등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요소를 일정하게 내포하고있다.

애국문화계몽사상가들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견해를 비교적 뚜렷하게 제기한것은 리상재(호는 월남, 1850-1927)였다.

리상재는 사람을 만물의 령장으로 보면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징을 《첫째는 심리상도덕이요, 둘째는 육체상위생이요, 셋째는 생활상경제》(《월남리선생실기》 108페이지)라고 하였다. 리상재에 의하면 심리상도덕은 인, 의, 례, 지와 같은 선량한 도덕을 의미하며 육체상위생은 눈, 귀, 코, 입 등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져있는것을 의미하며 생활상경제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생활조건을 완전히 갖추는것을 말한다.(《월남리선생실기》 108페이지)

그는 이 세가지 조건이 없으면 사람으로 될수 없고 동물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리성이요, 지식이요, 육체의 위생》(《월남리선생실기》 107페이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곧 도덕으로 표현되는 성령, 지식, 육신인데 성령은 사람의 몸을 주재하고 지식을 점점 깊이 가지도록 감동시키며 지식은 사람을 전진시키고 육신은 성령과 지식의 집으로 되기때문에 이 세가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고 하였다. 리상재에 의하면 육신이 없으면 성령과 지식이 집을 잃고 의거할데가 없으며 지식이 없으면 성령을 맑게 할수 없을뿐아니라 육신이 파괴되고 성령이 없으면 한몸을 주재할수 없고 지식을 감동시킬수 없으므로 사람으로서

의 존재가 불가능하다.

리상재는 이 세가지 특성가운데서 지식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우리 인류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품격을 성취코자 할진대 지식이 제일이니 지식은 만능의 힘》으로서 인간이 인간으로 되고 도덕을 가진것도 다 지식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리상재는 지식을 사적지식과 공적지식, 가짜지식과 진짜지식으로 구분하고 사적지식, 가짜지식은 개인의 정욕과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탐욕과 사기를 일삼게 하여 장차 세상을 그르치게 하지만 공적지식과 참된 지식은 인류세계의 기본투쟁을 도모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며 세계를 락원으로 되게 한다고 하면서 인간은 만물의 복리를 위한 공적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리상재는 인생을 육체적인 유형의 삶과 사회적인 명예를 내용으로 하는 유형무형의 삶, 정신도덕적인 무형의 삶의 세가지로 구분하면서 이가운데서 가장 값높은 삶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도덕적인 삶이라고 하였으며 정신도덕적인 삶을 떠나서 육체적인 삶이나 개인의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필연적으로 리기적인 정욕이나 사기협잡, 허위가 지배하여 인류가 정신적인 불구자로 되고만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생이 인생다운 인생으로 되자면 인간의 생명인 정신이 건전하여야 하며 진정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과 학술, 재예를 수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월남리선생실기》 122~125페이지)

사람에 대한 리상재의 견해는 사람을 천지만물가운데서 제일 뛰어나고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면서 그 근거를 가장 우수한 기로 이루어지고 료리도덕성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본 중세기적인 리해에서 벗어나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을 덕성과 리성, 경제생활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지식과 인생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진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있다.

이밖에도 애국문화계몽사상가인 전병훈은 사람은 천지만물을 이루는 정, 기, 신가운데서 가장 신령스럽고 우수한것으로 이루어지고 감각력, 지각력, 론리력, 의지력과 같은 생활력과 심리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신경계통을 통하여 우주를 밝게 꿰뚫어보고 하늘과 땅을 움직일수 있다고 하였으며((《정신철학통편》 권1) 박은식(호는 겸곡, 1860-1926)은 인류가 발생한 이래 맹수와 의 생존경쟁에서 사람이 승리하고 번성할수 있는것은 동물과 달리 지식을 가지고 기구를 리용하였기때문이라고 하였다.((《서우》창간호 1906년 1호) 여기에는 동물을 비롯한 만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성을 의식이나 리성적인 지식과 결부시켜보려는 견해가 맹아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조선근대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를 두드러지게 제기한것은 신인철학이다.

신인철학은 주체철학이전 조선철학을 마감지은 철학조류로서 사람을 철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심문제의 하나로 논의하였다.

인간에 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내천(사람이 곧 한울)사상이다.

신인철학의 인내천사상은 인간격중심주의사상으로서 신인철학의 기본원리를 이룬다.

인내천사상은 우선 인간격에 대한 리해에 기초하고있다.

신인철학에서 말하는 격이란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으로 보아 그에 알맞는 분수나 품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우주가 자체의 무위이화의 법칙에 따라 진화향상되는 과정에 성운의 격, 태양의 격, 식물의 격, 동물의 격, 인간의 격 등 다양한 격을 이루어놓았다는것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격이라는것은 우주의 모든 격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격을 말함 이니 인간격은 우주격을 대표한 최고의 격이다.》(《신인철학》 63페이지)라고 함으로써 인간 격을 우주의 모든 격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격으로, 우주격의 중심으로 되는 최고의 격이라고 보았다. 다시말하여 인간격은 우주세계의 진화향상의 마지막단계에서 형성발전된 인간이 갖추고있는 품격으로서 무기물이나 생물계의 다른 모든 종류들보다 그 품위가 가장 높기때문에 우주격 즉 한울격을 대표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격은 리상적인격이 되는것이며 이 리상적인격이 우주중심이 되어 무궁에서 무궁으로 발전하는것을 인간격이라고 한다.》(《신인철학》 65페이지)라고 함으로써 인간격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품격일뿐아니라 인간품격에서도 가장 발전한 단계의 인간의 품격이라고 보았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격은 전적(전체)인간 또는 미래의 인간을 통하여 얼마든지 향상되는 격이기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이 동물격, 자연격, 신비격을 다같이 안고있는 《우주격의 중심》이므로 《인간격은 곧 우주격》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의 인간격중심주의는 인간격이 우주의 모든 격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최고에 도달한 격이며 인간중에서도 가장 발전한 단계의 인간의 품격으로서 자체내에 동물격, 자연격, 신비격을 다 포함하고있다는 견해이다.

인내천사상은 또한 인내천의 본질이 사람이라는데 대하여 논의하고있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에 의하여 우주격이 표현되는것을 인내천이라고 하였다.

인내천이라는 말은 사람과 한울이 다같이 무궁한 우주의 실재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귀중성을 특징짓는 기본범주이다.

신인철학은 한울을 신비적인 존재로 본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주로 인정하면서 한울, 우주의 본체, 천지만물의 본원으로 되는 실재를 지기라고 하였으며 지기는 순수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며 자기 활동력(생명력)을 가진 물질적실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은 다같이 유일한 본체적실체인 지기가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난것이며 다양한 천지만물과 정신현상들은 자기 본체 즉 한울의 자기표현, 각이한 발현으로 된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사람은 한울, 우주의 중심이며 한울, 우주를 대표한다.

인내천의 본질을 이루는 사람이 만물의 령장,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상은 신을 전지전능한 최고주재자, 주체(주되는 바탕 또는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것이라는 뜻)로 내세우는 신본위가 아니라 사람을 《모든 응용의 주체》(《인내천요의》 103페이지)로 내세우는 인간중심, 인본주의사상이다.

신인철학은 인간이 의식을 가진것으로 하여 만물의 령장,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활동을 미리 구상하고 설계하며 객관세계를 인간성능동적주관에 맞게 개조해나간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을 한울에 비기며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이였다고 볼수 있으나 그것은 종교적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자체를 신적존재로 보는것으로 하여 리론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견해이다.

신인철학은 사람이 천지만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사람성본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사회성, 창조성, 평등, 자유로 보았다.

신인철학에서는 우선 사람의 본성을 사회성으로 보았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성가운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사회성이다. 신인철학에서 사회성은 서로 교호관계를 맺고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성질이다.

신인철학은 인간이 개체적존재인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조상전래로 대를 이어온 부모로부터 출생하고 공간적으로는 형제간이나 벗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살며 발전하는 인류무리라고 하였으며 개체적으로 보면 자연에 대하여 창해일속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집단을 이루면 그 힘이 무궁한 존재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발생직후부터 가정생활, 부락생활, 민족 및 국가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여왔으며 이러한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온것으로 하여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고 하였다.((《개벽》 1926년 10월호 생활회복의 도덕)

신인철학은 사람의 사회성과 개성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서도 언급하면서 개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성은 개성의 배후에서 개성의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하고 지배하므로 개성을 발전시키고 완전히 발휘하자면 스스로 사회성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개벽》 1922년 5월호 공론의 인으로 초월하여 리상의 인, 주인의 인이 되자) 신인철학은 인간이 의식을 가지게 된것은 자연으로부터 사회에 넘어 온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또한 인간의 본성을 창조성으로 보았다.

신인철학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새것을 발명하고 만들어내며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나가는 사람의 성질인데 신인철학에서는 이것을 창조성 또는 창조적위력이라고도 하였다.

신인철학은 창조성을 무궁무진한 신비력으로 보면서 사람이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나갈수 있는것은 창조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창조성이 왕성해야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이 이룩될수 있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성으로 하여 언제나 고정불변하게 동일한 운동만을 반복하는 자연이나 동물과 달리 자기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진화력을 가지게 된다.

신인철학은 인간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일개인의 위력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생활과 관련되어있으며 인간이 만물의 령장, 세계의 주인공으로 되는것은 사회성,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또한 사람의 본성을 평등, 자유로 보았다.

신인철학에서 사람의 본성을 평등, 자유로 본것은 인내천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인내천사상에서 사람이 한울이라고 할 때 사람은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일정한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사람들의 인격의 차이에 관계없이 인간격을 이룬 인류일반을 의미하므로 인내천은 평등주의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인내천사상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한울이므로 본질상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사람우에 사람이 없고 사람아래 사람이 없다.

신인철학은 계급과 권력, 빈부, 귀천, 상하, 준비와 같은 사회적불평등을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것으로 보았으며 그것들은 다 사람자체가 강제적으로 조직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간격에 합치시킬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울처럼 공경하고 사회제도를 사람의 본성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인철학은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적존재의 본질적특

성을 진화상의 량적차이에 귀착시켜 설명하였으며 그것마저 신비적외피를 씌워 인간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인간에 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주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견해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은 천지만물과 한 체계에 서있으며 천지만물이 진화발전하는 과정에 가장 마지막단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것은 《사람은 어떤 시대에 돌연히 출생한것이 아니라 무궁한 한울성이 천지만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도달한것이라 함이다. 천지만물과 인간이 한 체계에 서있으며 한 체계의 분화로 되었다는것은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이다. 그리하여 진화론상으로 보아 인간이 어떤 생물보다도 최종의 단계에서 생긴것을 알수 있다. 이 점이 인간으로 만물의 령장되게 된 점이며 우주의 주인공되는 인간격을 가진 점이다.》(《신인철학》 93페이지)라고 한데서 표현되었다.

계속하여 신인철학에서는 인간은 우주의 과실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신인철학에서는 《우주전체를 하나의 큰 나무에 비교한다면 인간은 우주의 과실되는 지위를 가졌다. 과실은 뿌리보다 줄기보다 가지나 잎보다 꽃보다도 가장 최후에 생긴것이다. 그러나 과실은 나무전체의 정력을 모아둔 점에서 나무전체의 표현이다. 이 점에서 인간은 우주의 과실이다.》(《신인철학》 93페이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천지만물의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발생하였으며 진화의 마지막단계에서 생긴 만물의 령장, 우주의 주인공이며 마치 나무전체의 정력을 모아둔 과실처럼 인간은 우주의 과실되는 지위에 있다는것이다.

신인철학은 인간의 의식상태가 인간격에 와서 구체적현상을 가졌기때문에 인간은 무엇보다 우주의 중심, 만물의 령장이 되었다고 하였다.(《신인철학》 96~97페이지) 즉 의식을 가졌다는 점이 인간의 본질적특성이며 이것으로 하여 인간이 만물의 령장으로 되며 우주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주인공으로 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은 육체적으로 볼 때 대자연가운데서 힘이 가장 약하다고 볼수 있으나 유일하게 의식(사고, 사상)을 가진것으로 하여 만물보다 고귀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고능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인간은 바다를 정복할수도 있고 비행기로 공중에 오를수도 있다는것이다. 또한 지난날 인간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무상의 실재로 숭배해왔지만 《신이라는것이 인간자신의 본성임을 알게 한것이 인내천주의의 공적》(《신인철학》 100페이지)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고대에 발생하여 중세를 거쳐 근대에 까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완벽한 해명은 주지 못하였다.

사람에 대한 완벽한 해명은 주체철학에 의하여 비로소 해명되게 되었다.